

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어촌 경제거점에 4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 30일(금)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사업 대상지로 6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주요 내용>

- (유형 1-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 원 지원
- (유형 2-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항 자립형 어촌 육성, 개소당 100억 원 지원
- (유형 3-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촌 시설 확충, 개소당 50억 원 지원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유형 1과 유형 2 사업은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유형 3 사업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 (공모신청서) 공문 / (사업계획서) 어촌·어항재생사업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newdeal300/main.do>)에 등록 후 우편 또는 택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9호 어촌·어항재생추진지원단)로 제출

해양수산부는 7월 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번 공모의 주요 내용과, 작년과 비교해 바뀐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계획들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어촌 생활인구가 늘어나, 어촌이 지역 경제 및 생활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차관실	책임자	과 장	엄익환 (044-200-6170)
	어촌어항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조승래 (044-200-6174)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 구상도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 구상도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구상도



사업유형별 대표 사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유형별 대표 어항

경북 영덕군 강구항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재정사업으로 수산물 가공 유통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관광 기반 인자사업과 연계해 '수산·관광 복합 거점'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특히,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유력 수산물 지원센터와 연계해 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상품 마케팅,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는 '수산물유통센터'를 조성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구항 지역의 채취형 관광의 유입을 위해 대관화차 및 해상케이블카 조성, 대형 소노 호텔 및 해상빌리지 등 총 4,263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 1,6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부산 가장군 문동항
유형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영계(물류비문화예술 협동조합)가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및 마을 소유의 유틸리티를 활용해 '해양생태 자원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행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장군에서 운영하는 'OK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시 창목항
유형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지역에는 민간투자로 추진되는 정육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어촌 관광·판매시설을 지원해 '활성형 어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장곡 지역은 민간자본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숙박·휴양 문화시설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 창목항에는 수산물 판매장, 피루드 레스토랑, 어촌 체험장 등이 들어가는 '수산물종합단지'를 조성해 총 4만 5,000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남 진도군 동유항
유형 3: 어촌 안전인프라 조성

파손이 심해 붕괴 위험이 있는 어선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고령자들의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것배워 지역에 안전 이동로를 설치합니다. 또한 만조 시 물에 잠겨 상시접안이 어려웠던 여객선 선착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 2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

1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유형 1)

- ◆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 경제거점 도시**' 조성(개소당 300억원 지원)

- ① (**경제기반 확충**)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복합센터,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생활경제 Hub&Spoke >



- ② (**생활서비스 공급**)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주변 생활권으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수산물 가공유통 단지 등 대규모 자본 필요 시설은 민간 투자 유치, 어항 도입시설 확대,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및 '어촌어항 활력펀드(가칭)' 도입 등 민간 투자 여건 개선

2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유형 2)

- ◆ 어촌 정주·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조성(개소당 100억원 지원)

- ① (**어촌형 소득원 확대**) 간편식(순살 고등어) 등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

* (예시) 고등어(350g) 2,000원 → 가공 순살 고등어 10,000원(부가가치 5배 향상)

- 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상품개발·판매, 관광서비스 인프라**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어촌공동체가 주도하는 **소득 안전망 강화**

- ② (**어촌 생활편의 지원**) 빈집 리모델링, 공공주택(10~20호) 등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 및 주민 **융합 프로그램** 등 유입인구의 정착 지원

- **어촌생활권*** 내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지원**, 섬 등 조건불리지역은 **무인 판매시설**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 확보

*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연계, 경제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 범위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유형 3)

◆ 낙후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 개선 등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개소당 50억원 지원)

- ① (생활환경 개선) 태풍·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 빈집 정비·공동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
- ② (교통편의 증진)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